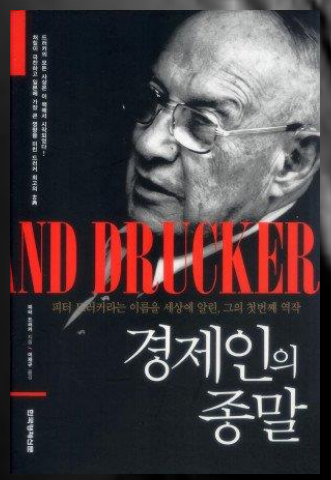
#6

피터드러커의

THE END OF ECONOMIC MAN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경제인의 종말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파시즘이 추구하는 비경제인 사회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산업사회의 비경제적 운영 혹은 파시즘이 목표로 하는 비경제인 사회

- 비경제적 사회, 비경제적 만족, 비경제적 산업사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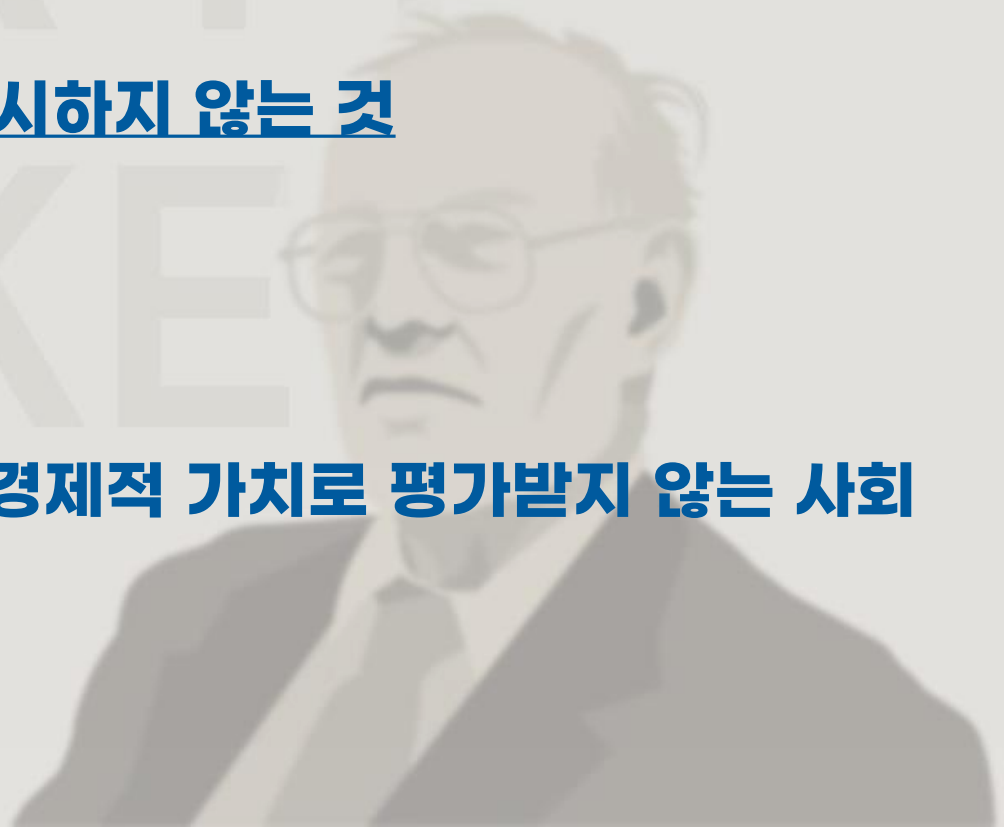
- 여기서 말하는 비경제적이란 뜻

  ~~비생산적 혹은 비효율적~~ vs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것

- 비경제적 사회

  =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이

  임금, 상여, 소득 등 개인이 획득하는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지 않는 사회



산업사회의 비경제적 운영 혹은 파시즘이 목표로 하는 비경제인 사회





- 이탈리아와 독일은
  개개인의 경제적 보상과 가치를 비경제적 보상과 가치로 대체하려고 했다.
  비경제적 보상을 통해 불평등한 방식을 유지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모두 신뢰를 잃은 상태

산업사회의 비경제적 운영 혹은 파시즘이 목표로 하는 비경제인 사회

:: 파시즘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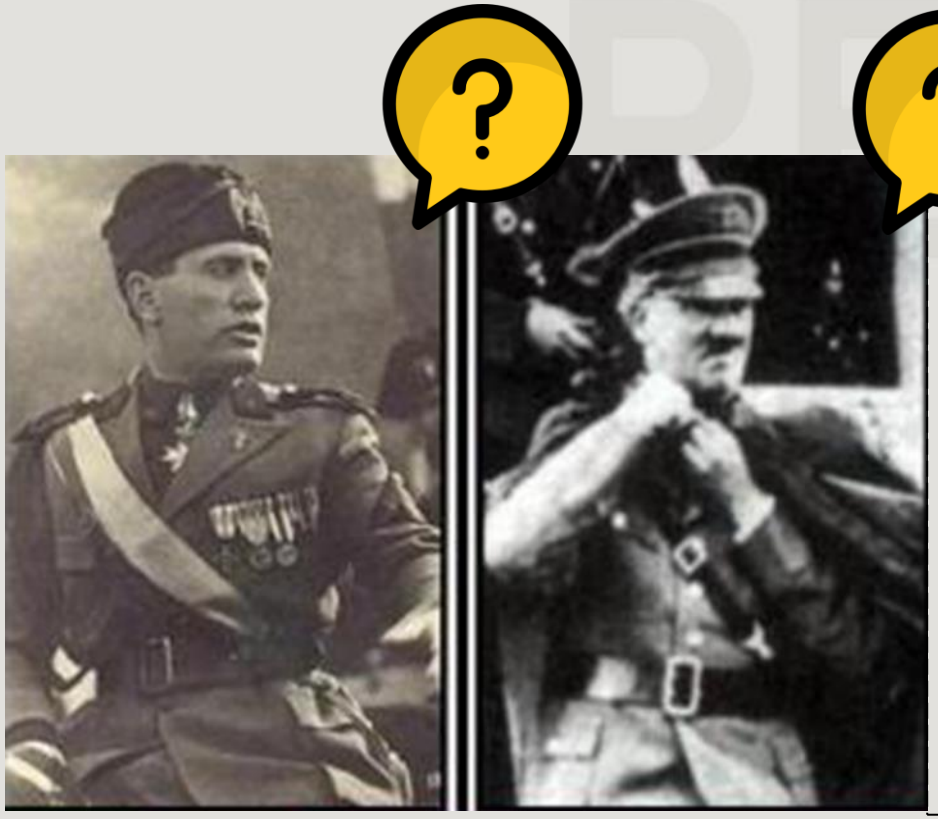
Q_1. 어느 계급이 파시스트당을 권좌에 앉힐 수 있을 것인가?

A. 특정 계급이 아니다.

Q_2. 전체주의는 자본주의인가 혹은 사회주의인가?

A. 둘 다 아니다.

산업사회의 비경제적 운영 혹은 파시즘이 목표로 하는 비경제인 사회



무솔리니와 히틀러도
그들이 수행한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

단지 **사회적 필요**가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하여금 **사회적 혁명**을 촉구
+ **비경제인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하도록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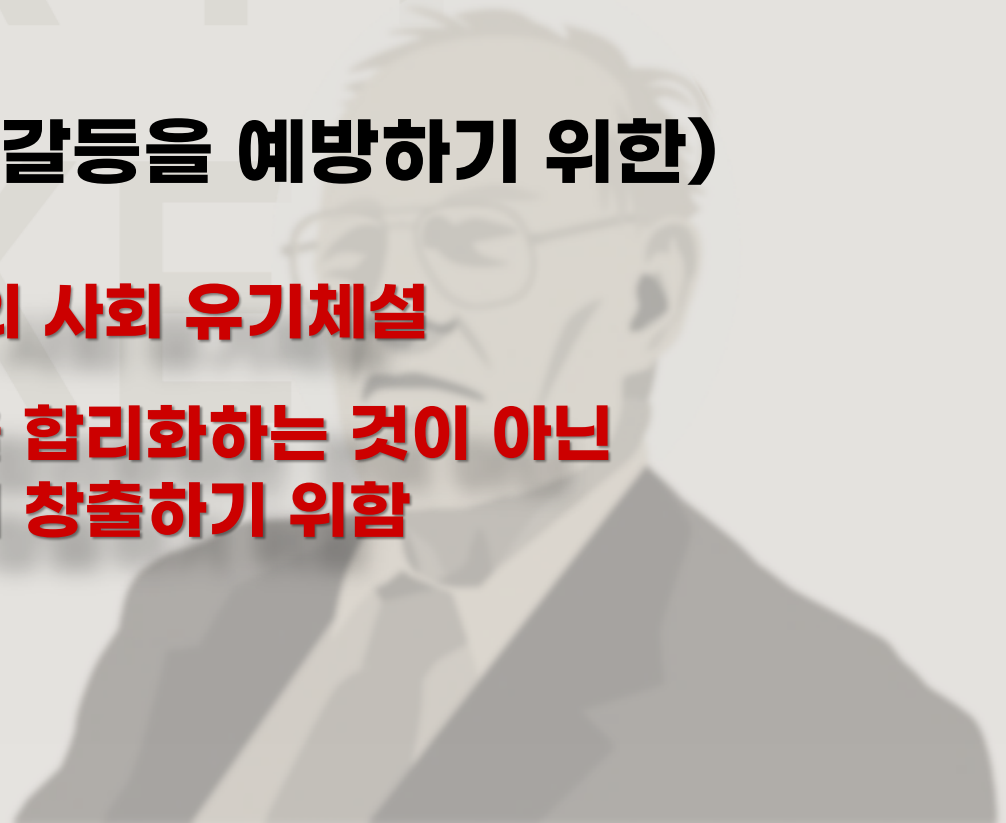
파시즘의 사회 유기체설

- 경제적 불평등은 비경제적 보상에 의해 유지되었지만,
  이를 당연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는 만들지 못했다.

- 사회 유기체설의 재등장 (계급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 유기체설 vs 파시즘의 사회 유기체설

**계급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제거할 목적으로 비경제적 역할의 창출하기 위함**



파시즘의 사회 유기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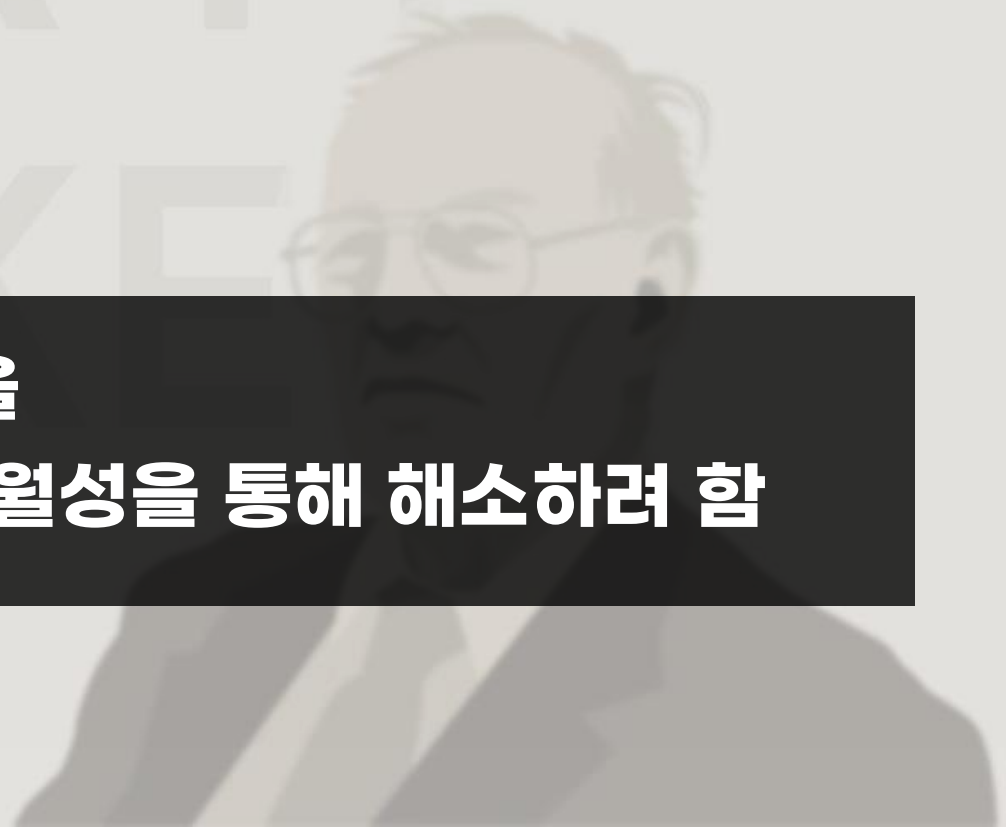
- **준군사적 조직들(Semi military formations)**

  Ex) 파시스트 시민군, 돌격대, 친위대, 히틀러 청년단, 각종 여성조직

  → 비경제적 목적에 이용

  → 군사적 가치 vs **사회적 중요성**

경제적 질투심을
준군사적 조직들에서 오는 비경제적 우월성을 통해 해소하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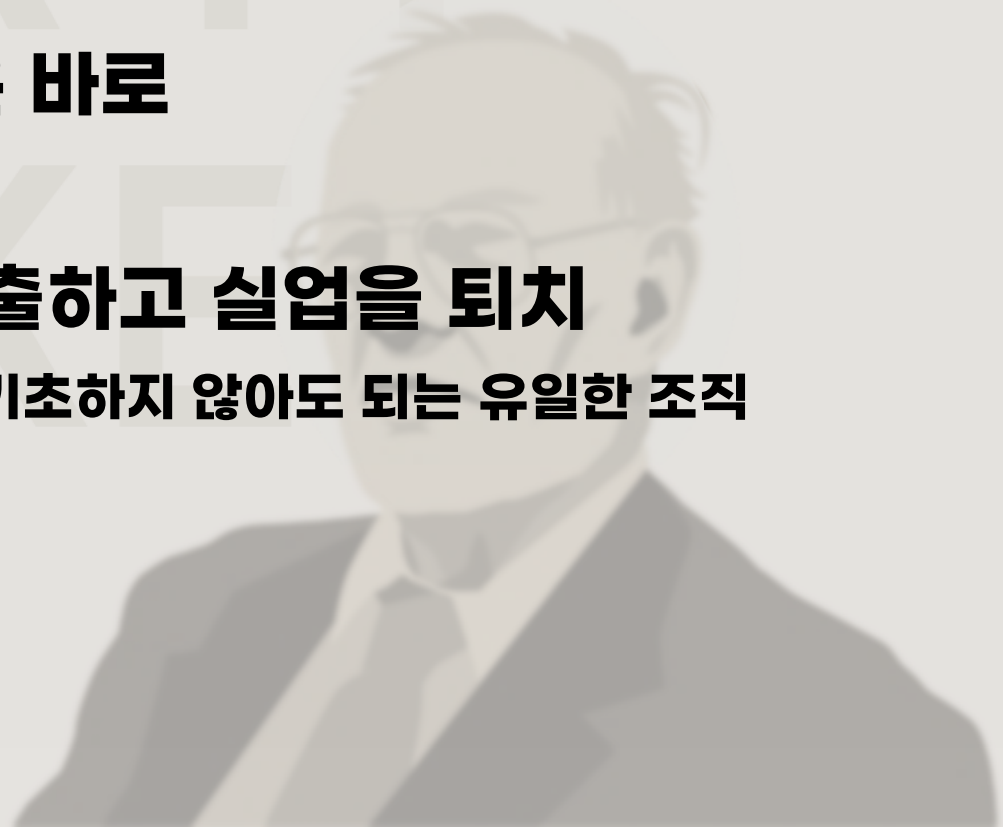
군국주의

-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바로

★★무장한 국가 → 완전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퇴치

군대는 개개인의 역할, 지위, 명예가 꼭 경제적 지위에 기초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조직



군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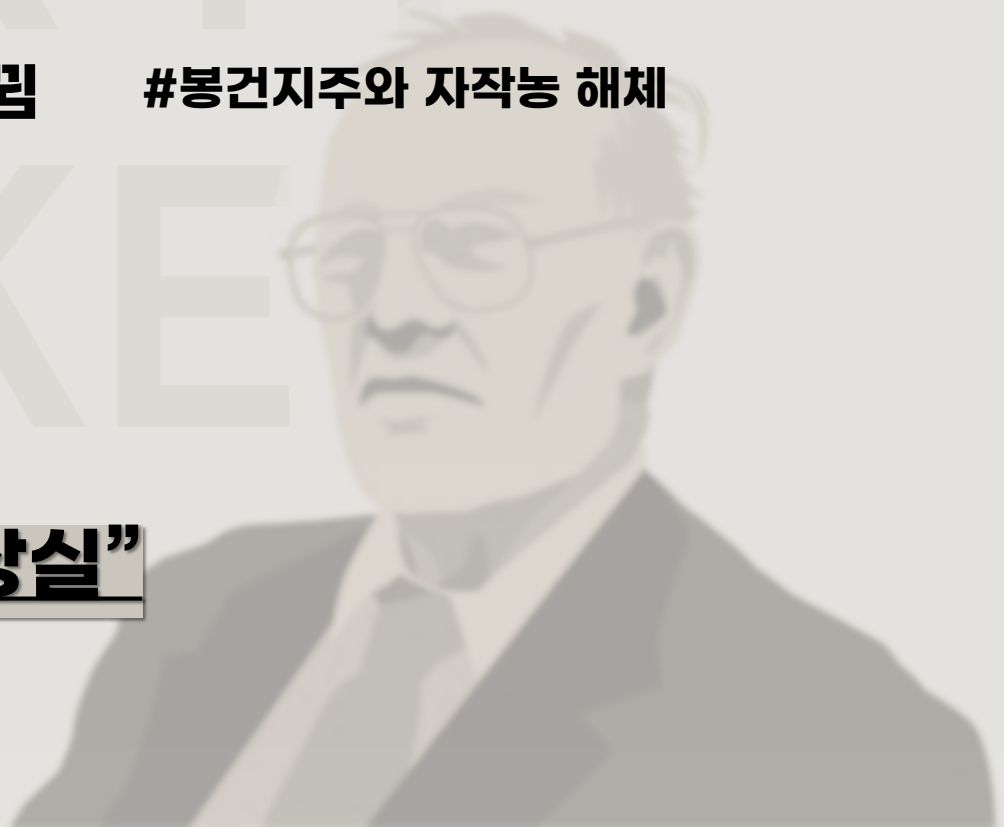
- 농부나 전문직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 분석 → **비경제적 사회구조**

  농업의 군대식 연대 편제 → **정부가 자유로운 교환 활동에 적극 개입**

  농장들은 대부분 수출을 위한 제조공장으로 바뀜 #봉건지주와 자작농 해체



“농부의 경제적 독립 상실”



군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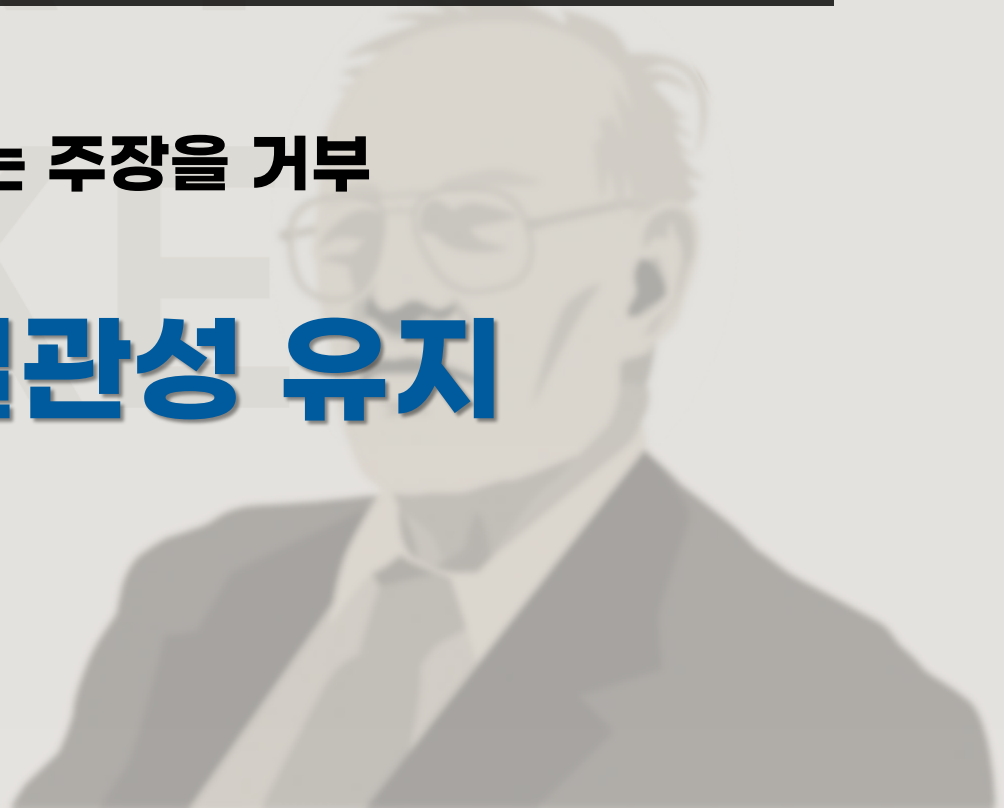
자유 전문 직업(Free professions)

→ 자유롭고 모든 사회 질서와 통합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 군사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존재

▲ 자유 전문 직업이 그 실체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거부

→ 무장한 국가의 일관성 유지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전체주의 경제학의 비밀은 ‘소비 관리’이다.



전체주의 경제학

현대의 과소소비이론	전체주의 경제학
불황의 이유	
 구매력의 부족	 과잉 소비와 생산재 산업에 대한 과소 투자
대응방식	
 소비 유도	 강제적인 소비 축소와 구매력 감소로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전체주의 경제학

전체주의 파시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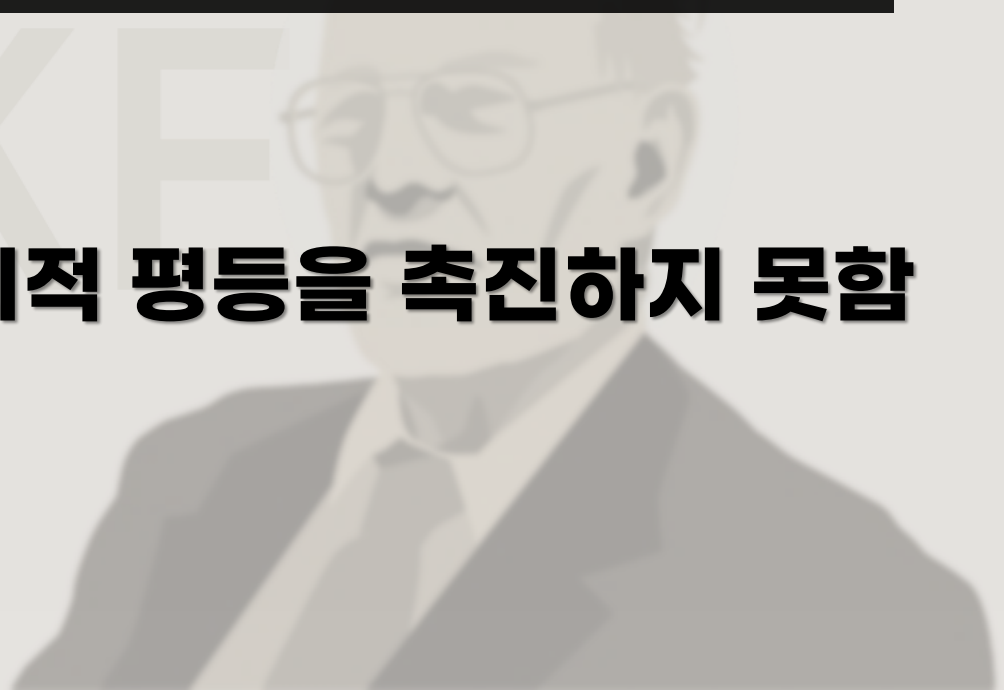
기존 산업생산방식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이라는 명백한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특권계층의 생활수준을 불공평하게 축소

- 소비 축소
- 화폐 소득 삭감
- 세금 인상

→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지 못함



전체주의 경제학

비생산적 투자재산
몰수와 강제노동
→ 사회적· 정치적 목적 달성 시도

디플레이션 정책
정부 공채의 강제적인 구입
사실상 강요된 개인헌금
→ 국민 소비를 축소
자본재 생산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양 증대

전체주의 경제학

- 이런 정책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 심지어 소비 관리 경제가 안고 있는 중심 문제는 경제 영역이 아닌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에 있다.

- 소극적인 경제적 배상은
  대중이 비경제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혀 믿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이 중단하지 않는 한 대중을 계속 만족시킬 것이다.

정신적 붕괴가 일어나면, 전체주의 사회는 **붕괴**

+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 수비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적으로도 **붕괴**

자원의 수입 문제

대금 상환을 위한 생산 증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낮아진 소득으로 인한 수출할 제품 생산 증가

악순환

수입 원재료 대금 부담

→이탈리아와 독일은 자급자족 체제가 아님

→ 군수생산 체제였기에 원재료가 높은 비율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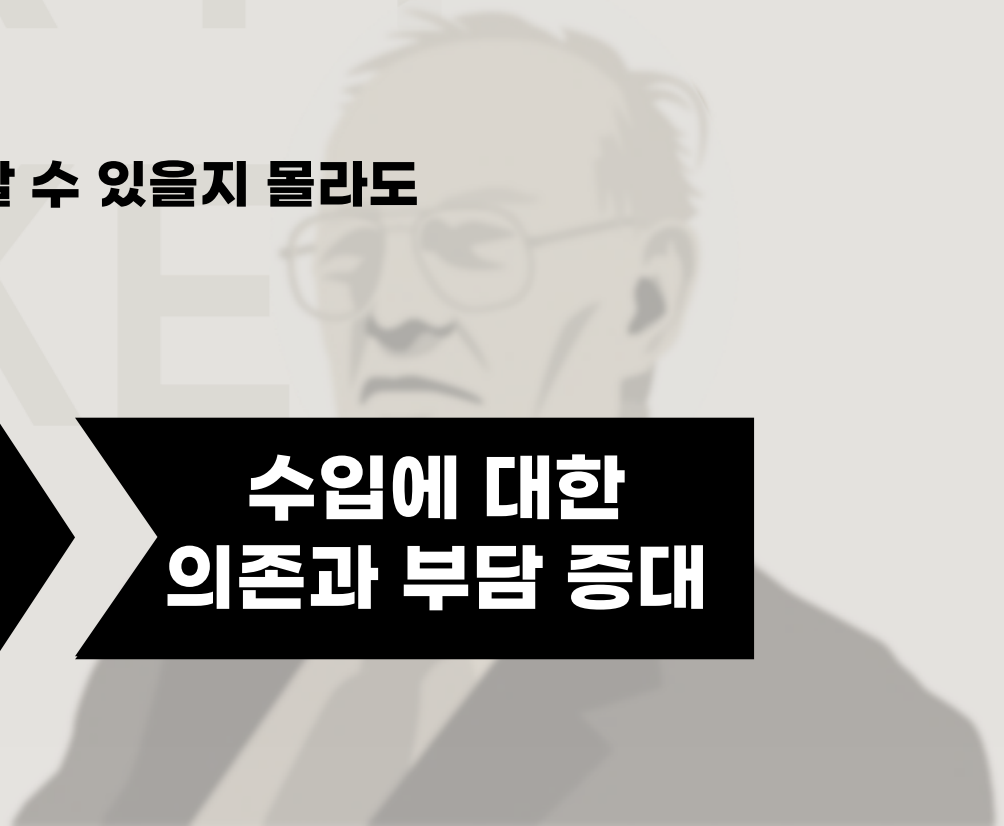
자원의 수입 문제

실제 상황은 이론보다 더 심각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생산된 식료품 중 대부분은 전쟁 등에 전용되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할당된 식료품은 오히려 감소함

→그나마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의 공급은 더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물용 사료의 경우 이미 한계였음

수입 농산물 점유율 상승 → 필요한 외화 증가 → 수입에 대한 의존과 부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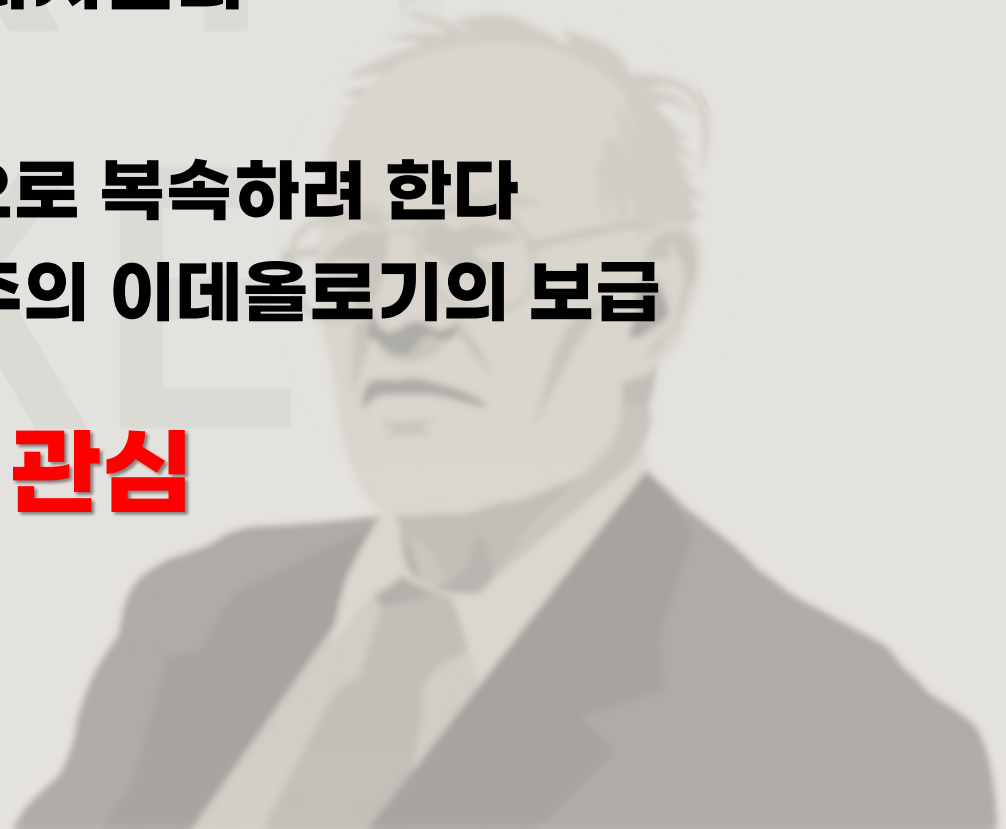


자원의 수입 문제

::수입 문제는 무력의 증가를 무력화시키며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원재료 생산국들을 정치적으로 복속하려 한다
전체주의 대외정책의 진정한 혁신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보급

발칸 반도에 대한 관심



자원의 수입 문제



전적으로 전체주의가 사회적, 정치적 기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

전체주의가 악마를 퇴치하고,
사회의 합리성과 세계의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